

크스님 수행한담

제거하는 것이 수행



6.25 전쟁때 소실된 태백산 보덕사 천왕문에서 삼척 감로사주지 보광스님, 前 회암사주지 의석스님 등 도반들과 함께한 서운스님(사진 왼쪽끝)

부처님이 계신 정법시대는 설법만 듣고도 깨쳤으나 지금은 하근기 시대라서 그양으로는 안됩니다. 화두를 짓든지 기도를 하든지 각자의 근기에 맞는 일관

“인간사 자초지종 마음에서 시작 마음으로 끝나니 마음의 눈 떠야죠”

상이 제거된 때지요. 또 검경소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희어지는 것은 업장 소멸을 나타냅니다. 선지식 스님네들이 화두의 참뜻을 몰라 그 의심이 마음 가운데 꼭 맺혀서 지나가나 그 의심을 놓을 수가 없게 되면 이것은 참으로 생사를 헤탈 하고자 하는 진실한 발심 자로서의 의심인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얼마동안은 의심이 죽 잘 나가

마음이 모든 행동을 먼저 결정 합니다

된 수행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참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화두란 비유컨대 소(마음)를 길들이는 말뚝과 같은 것입니다. 1천7백가지 공안(화두)이 많은 달라도 역할은 같습니다. 법당밖에 흔히 그려진 심우도를 예로 들어보지요. 산속의 소는 길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서를 모르고 욕심과 투쟁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를 찾아 말뚝에 묶고 길들이면 코뚜레를 꿰수도 있습니다. 말뚝은 풀이나 돌, 참나무 등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소를 길들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말뚝은 의미가 없지요. 화두를 안들어도 공부 잘된다면 굳이 화두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끈을 당기지 않아도 잘 따라온다면 끈도 필요 없지요. 나중엔 소와 사람이 일체가 됐다가 사람도 소도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바로 이 상태가 번뇌 망

하처(問如何事 歸何處)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죽은 사람에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이 합당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허망하고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부터 불법만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묘한 진리란 걸 깨닫고 정진 또 정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와같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닥쳐도 마음을 먹으면 신한 결과를 낳는 법입니다. 팔만대장경도 전체를 뜯듯 통치면 심(心)자 한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한자의 문제만 용해 해결하면 일체의 불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체 만법을 다 통할 할 수 있고 삼세제불(三世諸佛)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인간사의 자초지종(自初至終)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의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자기의 본성, 즉 자성(自性)을 보는데 그것을 견성(見性)이라고 합니다. 나는 출가인들에게 오직 견성 성불을 위해 하루 24시간 항상 긴장하며 깨어 있으라고 권합니다. 속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수행자처럼 항상 정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 선방에서 용맹정진 하던 시절부터 계속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주장자를 오른손에 잡고 무릎 꿇은 채 참선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노스님들에게 가르침을 배울 때에는 반드시 무릎 꿇고 앉으며 정진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을 마주치면 차수한 손을 들어 합장 반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그 옛날 엄격했던 수행자의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려워 안타깝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옛날 출가 때 초발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릎 꿇고 참선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누르다보면 마음이 청정해 지지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즉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점차 제거해서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동안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정진하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아무도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속의 참 모습을 스스로 탐구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정진에 의해 해탈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정진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모든 어려움이 차츰 사라질 것입니다. 내일은 더 쉬워지고 더 다음날은 더더욱 수월해 질 것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나의 수행일기. 이교재. <김복구형 사진교실 강사> 피난민이란 명찰을 달고 타향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형민의 한 사람이다. 불교와의 첫 만남은 휴전 직후 권영과 함께 강화도 전등사를 참배한 것이었다. 나는 그때 이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불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형으로 부터 알게됐다. 역사속에서 만나고, 등산길에도 만나고, 무작정 길을 걸다가도 만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불교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젊은 나이이지만 실형민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았을 뿐이다. 불자로서의 이러한 생활은 수년간 지속됐다. 언덕길에 있으면 내리막길에 있는 것일까. 타향에서 열심히 노력해 직장내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가정도 나름대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 즈음

개심사스님의 무설법문에 방향 '끝' 전방부대 장병위문은 구도여행. 시련이 다가왔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방향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거침없이 극한 상황으로 치달고 있었다. 이 때 내 인생의 좌표를 바로 잡아 준 스님이 계시다. 부처님께 대답한 마음이나마 속시원히 털어놓고 싶은 간절한 심정에서 절을 찾은 적이 있었다. 과산 개심사였다. 그곳 주지스님은 나를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차나 한잔 하자"는 것이었다. 스님의 안내로 스님방에 들어가 단들이 마주 앉았다. 그 때만 해도 스님과 마주앉아 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때이고, 게다가 비구니스님과 마주 앉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 스님은 차를 우려내어 주셨다. 그리고 또 한 잔을 주셨다. 몇잔을 마셨는데도 스님은 아무말씀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모른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는 아무말도 없이 스님방을 빠져나왔다. 그 후부터 나의 존재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것이 방향의 종지부를 찍게 될 줄은 그 때를 전혀 몰랐다. 그리고 서서히 불교가 가까이 접하면서 스님의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크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참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빛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